「로동신문」에 드러난 북한의 산림정책*

송민경[1)]·박미선[2)**]·윤여창[2)3)]

Forest Policy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resented in *RodongSinmun*

SONG Minkyung[1)], PARK Mi Sun[2)**], and YOUN Yeo-Chang[2)3)]

1)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Center for Forest and Climate Change,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Research Institut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3)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Department of Forest Sciences, SeoulNationalUniversity)

제출 : 2012년 6월 29일 수정 : 2012년 8월 24일 승인 : 2012년 9월 17일

국 문 요 약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되어 1990년대 극심한 경제난을 겪은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산림황폐화에 대응하여 산림복원 및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왔으나 정책 실행과정 및 결과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로동신문은 국내에서 접근이 가능한 북한 자료로서 당 기관지이므로 북한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을 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대표적 미디어인 로동신문에 실린 산림관련 기사를 조사함으로써 북한 산림정책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11년까지 표제에 '산림' 또는 '림산'을 포함한 499개 산림관련 기사를 분석하였다. 기사를 통해 보도된 국가산림계획 및 정책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정책수단이론에 근거하여 산림보호 및 녹화를 위한 규제적, 경제적, 정보적 정책수단에 관한 보도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로동신문은 산림조성, 산림경영, 국토관리, 산림보호에 대한 국가 산림계획 및 정책을 보도하였다. 북한 산림정책의 방향은 1990년대 산림 이용 중심에서 2000년대 산림보호와 관리로 변하였다. 로동신문은 경제적, 사회적 유인 수단보다는 규제적 수단과 교육 및 훈련 중심의 정보적 수단에 관한 내용을 더 많이 보도하고 있었다.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 및 지적을 통해 산림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림 보호 및 녹화활동을 애국활동으로 묘사하였다. 산림조성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선전, 선동 활동이 보도되었고, 최고 지도자로부터의 포상 및 모범 업적에 대한 공로 평가도 일부 보도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로동신문이 북한 정부의 산림정책을 드러내고 선전, 선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주제어 북한, 산림황폐화, 산림정책, 정책수단, 로동신문, 내용분석

Abstract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ccelerated from the mid 1980s through the economic crisis in 1990s and is still happening. DPRK has conducted

* 본 연구는 산림청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 S211012L020230)' 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교신저자: mpark@snu.ac.kr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activities against this trend. However there are not many official documents on achievement of forest rehabilitation in DPRK. "Rodong Shinmun," as an official newspaper published by North Korean Workers Party, represents governmental policies and is one of a few accessible information on DPRK which is available in Republic of Korea (ROK).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national forest policies of the DPRK represented in Rodong Shinmun. Total of 499 articles using the word 'Sanlim (forest)'and 'Rimsan (forest product)' in the title of articles were selected for content analysis. The national forest plans and forest policy instruments contained in the selected articles were analyzed. The subjects of represented forest policies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forestation, forest management, land management and forest protection or conservation. The focus of forest policy was changed from economic utilization of forest resources such as timber production in the 1990s to forest protection in the 2000s. Rodong Shinmun reported more frequently about regulatory instruments and informational instruments than the economic instruments. Official commendation and awards were the main incentives given to the people who contributed to forestry achievements. In particular, forest policies were emphasized by Kim Il Sung and Kim Jong Il and afforestation and forest protection were described as patriotic activities in the Rodong Shinmun. In conclusion, this research revealed that Rodong Shinmun plays a role as a means for introducing, propagating and instigating forest policies in the society of the DPRK. The findings help to understand the forest policies of the DPRK which could be useful when designing development aids for DPRK.

Keyword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rest Degradation, Forest Policy, Policy Instruments, Rodong Shinmun, Content Analysis

Ⅰ. 서론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와 함께 산림황폐화가 심각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Maplecroft, 2011). 우리나라는 북한 산림복원 및 보호를 위해 1990년대 말부터 양묘장 건설, 조림, 병충해 방제를 중심으로 남북산림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Park and Youn, 2010). 남북산림교류협력사업은 단일 민족으로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인 동시에 통일 이후 국토관리를 대비하기 위한 선행 조치이기도 하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북한 산림황폐화 방지 사업을 통하여 한반도 전체를 탄소저장고로 만들고자 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산림청, 2009). 성공적인 남북산림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북한 산림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 산림복원 및 보호 정책은 북한 산림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1980년대부터 북한 산림황폐화 방지 및 복원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수

행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임업 및 산림현황에 대한 연구(이항구, 1980; 변흥상, 1992; 유병일, 1992; Mueller, 1993),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 산림황폐화와 복원에 관한 연구(윤여창, 박동균, 홍성각, 1999; 이규성, 윤정숙, 정미령, 1999; 박동균, 2000)가 주를 이루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원격탐사를 통해 북한 산림현황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고(이민부 외, 2003; 이민부 외, 2003; 정승규, 박종화, 김상욱, 2006; 염종민 외, 2008; 차수영, 서동조, 박종화, 2009a; 차수영, 서동조, 박종화, 2009b), 토지이용·토지이용변화 및 임업활동(LULUCF)과 신규조림 및 재조림을 통한 청정개발체제(AR CDM), 그리고 최근에는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REDD)사업까지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보호 및 복원 사업의 잠재성이 평가되었다(김태근, 2003; 홍은경, 2003; 한기주, 2005; 한기주, 윤여창, 2007; 오영출, 2007; 이동근, 오영출, 김재욱, 2007; 조장환, 구자춘, 윤여창, 2010).

이와 같이 북한 산림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기술적 접근이 강하지만, 일부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북한 산림관련 제도 및 조직(박경석, 박소영, 2009; 박경석, 이성연, 박소영, 2009), 법률(유병일, 1995; 김성욱, 2010)을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현실적으로 북한 국가산림계획 및 정책문서, 연구논문을 확보하기 어렵고, 북한 산림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가 불가능하므로 북한 산림정책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북한 미디어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산림정책을 분석하였다. 로동신문은 국내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북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정책, 언론, 경제, 외교, 교육, 여성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이용되어왔다(염홍철, 1987; 이항동, 1997; 김영주, 박춘서, 2001; 진희관, 2004; 김경모, 2005; 장하용, 박경우, 2005).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북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므로 북한정부의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선행연구에서 북한산림정책을 기술하면서 로동신문 보도내용이 인용되기도 하였으나(박경석, 박소영, 2009; 박경석, 이성연, 박소영, 2009), 로동신문의 산림관련 기사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로동신문에 드러난 산림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최근 22년 동안의 북한 산림정책의 변화를 파악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 수단이 활용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북한 산림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물은 북한 산림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북한 산림황폐화 방지 및 산림복원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데 주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로동신문의 기능과 특성

로동신문에 드러난 북한 산림정책을 분석하기 위하여 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디어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널리스트에 의해 선택된 의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현실을 보여준다(Park, 2009; Robinson, 1981). 사건의 규모, 명확성, 예외성, 사회적 유의미성, 근접성 등의 뉴스가치(Galtung and Ruge, 1965; McQuail, 1994)는 저널리스트가 뉴스를 선택하는 핵심 기준이다. 또한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미디어의 이념적 성향, 제도적·경제적 구조 및 여건에 따라 보도 내용과 논조가 다를 수 있다(이원섭, 2007; 한동섭, 유승현, 2008). 따라서 미디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보도의 편향(bias)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주의 언론에서 뉴스 가치는 공중이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편완식, 2001). 특히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사회에 비해 이데올로기적 동질성이 매우 높고,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치적 교화기능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사회이다(강현두, 1997). 이러한 사회체제 속에서 북한언론은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대중을 설득하고 가르치며 교화하는 기본수단으로 사용된다(편완식, 2001). 북한의 언론매체 가운데 로동신문은 북한의 가장 대표적인 신문으로 그 논조와 성격이 곧 북한언론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창간 이래로 로동신문은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선전하며 '주체사상 일색화' 활동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으며(편완식, 2001), 당의 노선과 정책을 실현하는 데 가장 권위 있고 핵심적인 신문으로 알려져 있다(김영주, 박춘서, 2001). 로동신문은 구조적으로 조선노동당 비서국선전선동부에 소속되어 조직과 예산 등에 있어 철저히 당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사실보도를 통한 여론조성보다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독자를 교양하는 선전선동의 기능에 주력하고 있다(이재일, 1993; 전현준, 2001). 이처럼 북한 당국은 당의 입장과 정책을 획일적으로 나타내는 수단으로 로동신문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로동신문은 북한의 정치적·정책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권위적인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이미경,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로동신문에 드러난 북한 당국의 산림정책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정책수단

본 연구에서는 정책수단이론을 중심으로 북한 산림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정책수단이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는 도구 및 기술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정책수단은 규제적, 경제적, 정보적 수단으로 구분된다(Bemelmans-Videc, 1998; Krott 2005). 규제적 수단은 규정을 통해 사회,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이다. 규제적 수단에는 법률, 규칙, 명령, 지시 등이 있다. 산림정책에서 명령-통제(command and control) 규제는 무분별한 산림이용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산림을 육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1992년에 제정되고 2005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북한 산림법에 따르면 나무베기(벌채)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나무를 벨 수 없고(제32조), 벤 나무는 해당 기관이 발급한 나무 반출증에 의해서만 반출할 수 있다(제34조). 허가 없이 벌채를 한 경우 원상 복구시키거나 벌금 또는 손해보상금을 물리며 불법적으로 얻은 생산물과 위법행위에 이용된 도구와 수단은 몰수된다(제46조). 이와 같이 규제적 수단은 특정 대상자에게 산림관련 활동에 대한 의무를 지운다. 경제적 수단은 경제적 가치 교환을 통해 사회,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이다. 여기에서 경제적 가치란 재화, 서비스, 시간, 노력 등을 말한다. 경제적 수단은 일반적으로 보조금, 세금, 융자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방지시설·장비 및 운영, 조림·육림·사방사업, 임도 건설 사업 둥에 대한 국고보조금(박경석 외, 2007)이 경제적 수단에 포함된다. 정보적 수단이란 정보를 통해 사회,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으로서 교육, 홍보, 상담, 캠페인 등을 포함한다. 산림에 관한 간행물을 발간하고 산림관련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산림정책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알릴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제적, 경제적, 정보적 정책수단의 적절한 구성 및 조합은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10년 동안 산림정책수단에 관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다. 산림정책수단의 유형분류(Lazdinis et al., 2005), 구성 및 조합(Serbruyns and Luyssaert, 2006), 평가(Cubbage et al., 2007)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산림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 선행연구에서 증명된 산림정책과정에서 정책수단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하여 북한 미디어에 드러난 다양한 산림정책수단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설계 및 방법

로동신문에 드러난 북한 산림정책을 파악하기 위하여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였다. 내용분석은 조사자가 문서에 기록된 사회적 구조물(artifacts)의 종류를 수집, 분석하는 비개입적 조사방법이다(김병섭, 2008). 내용분석의 핵심은 구체적으로 기술된 메시지의 특성을 객관적,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추론을 내리는 데 있다(Riffe, 2001).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법을 적용하여 북한 대표적 미디어인 로동신문에 드러난 북한 산림정책의 구성과 변화에 대한 추론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1990년부터 2011년까지 로동신문에 게재된 기사 중 표제에 '산림' 또는 '림산'을 포함하는 총 499개의 기사이다. 표본의 시간적 범위는 북한이 19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며 산림황폐화가 가속화된 시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경제난과 함께 찾아온 산림황폐화의 문제를 심각하게 겪으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추진한 산림정책과, 또 그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집행되어온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범위이다.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1990년부터 2003년까지 발행된 기사는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로동신문연구팀이 2006년에 발간한 로동신문 색인을 이용하였고, 2004년 이후부터 2011년까지 발행된 기사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검색서비스를 활용하였다.

로동신문의 산림기사에 드러난 북한의 국가산림계획 및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귀납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기사를 읽는 과정에서 기사 본문에 나타난 국가산림계획 및 정책을 코딩하고, 그 가운데 반복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계획 및 정책을 분류하여 상위 유목별로 정리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시계열상으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그 추이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로동신문에 드러난 정책수단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책수단이론에 근거한 규제적 수단, 경제적 수단, 정보적 수단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다음 <표 1>과 같이 분석틀을 구성하고, 각 기사가 변수에 해당하는 내용을 드러내는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였다.

표 1 정책수단에 관한 분석틀

변수		내용
정책 수단	규제적 수단	법률, 훈령, 행위규제, 명령, 지시 등
	경제적 수단	벌금, 보조금, 식량지원, 포상 등
	정보적 수단	캠페인, 교육, 홍보 등
	기타	규제적, 경제적, 정보적 수단 외의 정책적 수단(예: 행정 조직 개편 등)

Ⅳ. 결과

1. 국가산림계획 및 정책

1990년부터 2011년까지 로동신문에 게재된 산림관련 기사에 반복적으로 언급된 북한의 국가산림계획 및 정책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전체 499개의 기사 중 45%를 차지하는 225개의 기사에 국가산림계획 및 정책에 관한 언급이 있었고, 개별적으로는 총 298개의 국가계획 및 정책이 언급되어 있었다. 식수사업, 수림화·원림화 정책[1], 양묘사업 등 산림조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산림경영 방식에 대한 보도와 임목생산계획 및 목표 등 산림경영과 관련한 계획 및 정책의 언급 빈도가 높았다. 이어 국토관리계획 및 정책과 산림보호정책의 빈도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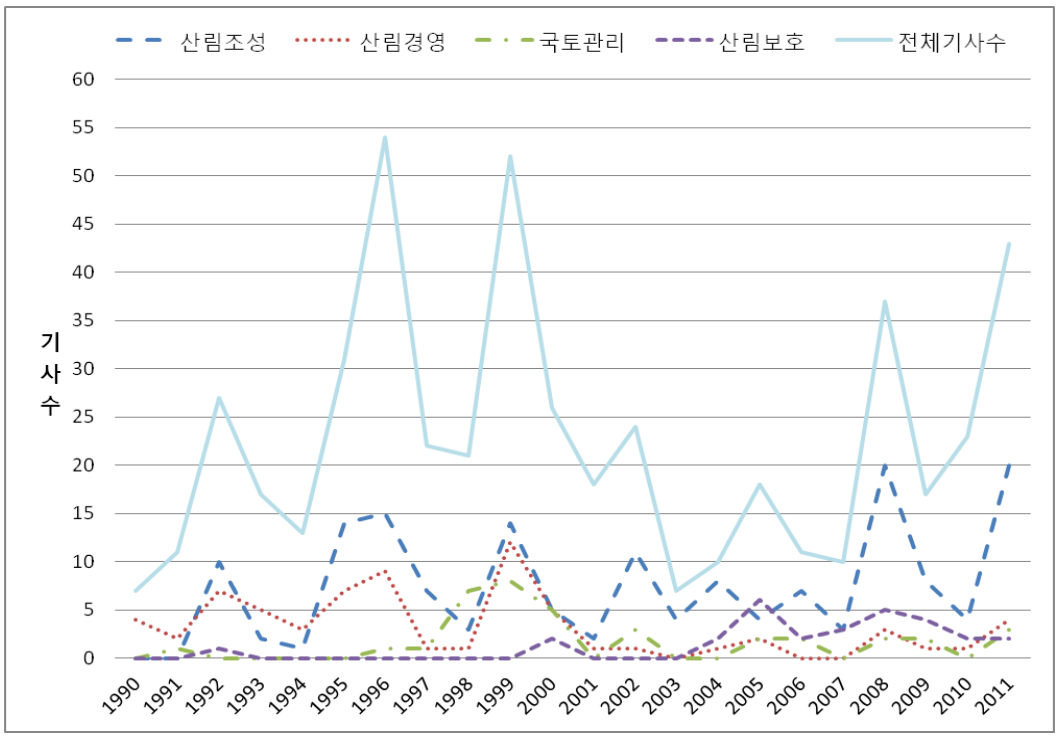
표 2 로동신문 산림관련 기사에 드러난 국가산림계획 및 정책

대분류(빈도)	소분류(빈도)	세부정책(빈도)
산림조성 (162)	식수사업(64)	봄철, 가을철 나무심기(51)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는 사업(7)
		식수사업(6)
	수림화, 원림화(47)	수림화, 원림화 사업(47)
	양묘(29)	나무모 생산 계획(18)
		나무모밭 조성(5)
		숲사이 나무모 기르기(6)
	기타 산림조성사업(22)	
산림경영 (70)	산림경영방침(49)	나무를 한 대 베고 열 대를 심는 원칙(18)
		순환식 채벌 원칙(11)
		줄식 산림개조 방법(10)
		산림개조사업(7)
		대자연개조구상(3)
	임목생산(21)	통나무생산(15)
		동발나무생산(6)
국토관리 (37)		국토관리총동원기간(21)
		국토관리사업(16)
산림보호 (29)		산림보호사업(12)
		산불막이대책(13)
		산불감시, 통보체계(4)

1) 수림화는 국토를 보호하기 위해 울창한 산림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림화란 도시와 마을의 공원, 유원지 등을 아름답게 꾸리고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법을 채택하였으며, 2002년 1월 1일 로동신문 공동사설 신년사를 통해 '수림화 · 원림화' 정책을 강조하여 선언한 바 있다(박경석, 이성연, 차준희, 2003; 박경석, 이성연, 박소영, 2009).

각 정책들이 추진된 시기와,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책추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시계열 추이 분석을 하였다. 산림조성, 산림경영, 국토관리, 산림보호의 네 가지 대유목에 대한 시계열 분석 결과, 산림조성과 산림보호 관련 기사의 보도 빈도는 1990년대에 비하여 2000대 후반으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늘었고, 반대로 산림경영과 국토관리 관련 기사의 보도 빈도는 줄었다. 국토관리에 관한 내용의 기사가 다른 시기에 비해 1998년과 1999년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것은 1998년에 국토환경보호성이 설치되면서(박경석, 이성연, 박소영, 2009) 국토환경정책으로서 산림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와 산림보호 관련 기사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북한 당국이 2000년대부터 산림황폐화가 홍수피해를 증대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산림보호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박경석, 이성연, 박소영, 2011).

그림 1 로동신문에 보도된 국가산림계획 및 정책의 대유목별 시계열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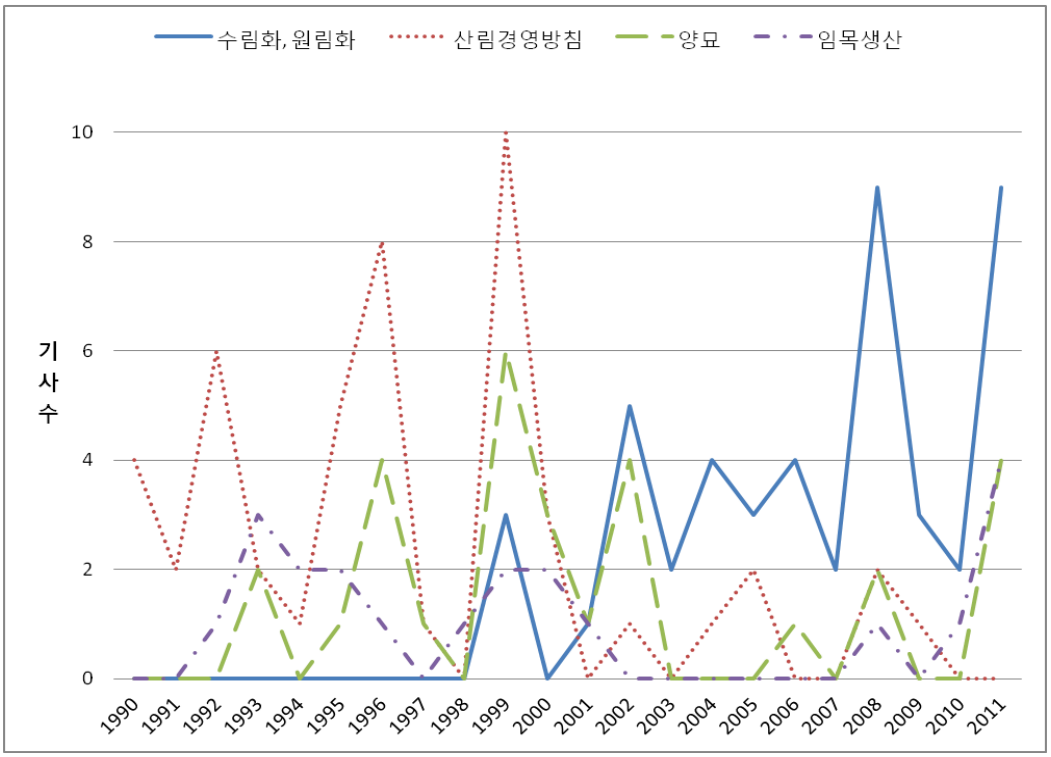
보도된 정책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조성과 산림경영에 관한 세부정책의 보도 현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주요 소유목에 대한 시계열 추이를 분석하였다(그림 2). 먼저 수림화·원림화 정책에 대한 언급이 1999년을 시작으로 하여 2000년대에 들어 확연히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0년대 들어 전국의 수림화·원림화를 총체적 산림정책으로 규정한 정책 변화(윤여창, 박동균, 2008)를 잘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2000년 이후 최악의 경제난을 벗어나 사회가 안정화되면서(박경석, 이성연, 박소영, 2009), '2001~2010년 산림조성 10년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계획은 매년 10만~15만ha씩 식수사업을 진행하여 총 150만ha의 산림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박경석, 이성연, 박소영, 2011).

한편 이와 반대되는 양상으로, 산림경영방침과 임목생산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언급 빈도는 1990년대에 많은 비중을 보이다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산림경영방식에 해당하는 세부 정책은 나무를 베는 것에 앞서 나무를 심는 것에 주력할 것을 촉구하는 '나무를 한 대 베고 열 대를 심는 원칙(박경석, 이성연, 차준희, 2003)', 벌목 대상 산지에 순환작업구역을 설정하고 원목의 최적 벌기 시점을 기다려 집중적으로 벌채한 뒤 그 자리에 다시 집중적 조림을 하여 벌채와 산림보호를 병행하는 방식인 '순환식 채벌 원칙' 등 산림을 이용하는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방침과 원칙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경영방식은 북한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2]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통나무 생산, 특히 연료로서 사용되는 동발나무의 생산에 관한 계획 및 정책에 대한 언급 빈도 역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감소하였다.

로동신문에 보도된 산림관련 기사는 북한 당국이 로동신문을 통해 산림정책을 선전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로동신문을 활용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또한 보도된 산림정책의 내용은 북한 당국의 산림정책이 1990년대 산림 이용 중심 정책에서 2000년대에 와서 산림보호와 관리 정책으로 변화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FM)이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 · 증진을 통하여 사회적 · 경제적 · 생태적 · 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산림청, 2008).

그림 2 로동신문에 보도된 국가산림계획 및 정책의 소유목별 시계열추이



2. 산림정책수단

로동신문에서 북한 산림정책수단에 관한 기사의 분포를 살펴보면, 규제적 수단을 언급하고 있는 기사가 전체 기사의 75.9%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경제적 수단에 관한 언급은 5.2%로 가장 낮았으며, 정보적 수단에 대해 언급한 기사는 37%를 차지했다(표 3).

표 3 로동신문 산림관련 기사에 드러난 산림정책수단

정책수단	기사 수 (백분율)
규제적 수단	379 (75.9)
경제적 수단	26 (5.2)
정보적 수단	185 (37.0)

1) 규제적 수단

전체 기사의 75.9%를 차지하는 379개의 기사는 규제적 수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 중 364개의 기사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 및 지적(명령)을 담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 북한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더 구속력이 있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제 3조 6항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휘장,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 수령님의 현지교시판, 당의 기본구호들을 정중히 보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경식, 2009). 따라서 북한에서는 공식 문건뿐만 아니라 잡지, 출판물 등에 기고한 글에서도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교시'를 인용하고 있다. 10대 원칙은 또한'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김일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박상익, 2008). 수령절대주의 사회인 북한에서 산림에 관한 수령의 교시는 산림정책의 수립 및 실행의 절대적 근거가 된다. 로동신문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교시와 명령을 제시하면서 산림정책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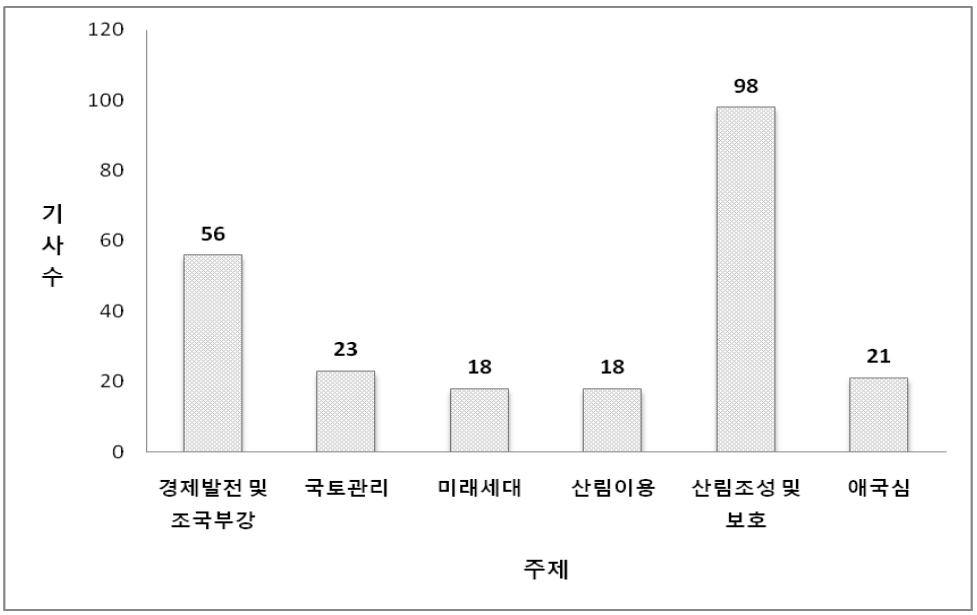
전체 기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교시 및 지적 문장(부록 참조, 총 234개)을 범주화하여 경제발전, 산림조성 및 보호, 애국심, 미래세대, 산림이용, 국토관리 및 보호로 구분하였다(그림 3). 인용된 교시 및 지적 중 산림조성과 보호를 강조하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 산림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을 조성하도록 요구하였는데, 특히 아카시아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였다.[3] 그리고 산림 보호를 위해 철저한 산불 예방을 강조하였다. 산림보호에 관한 기사는 입산, 임산물채취, 영농행위 등에 관한 행동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입산증의 발급과 관리기관의 승인 하에 입산 및 산림활동이 가능하며, '산에 들어가는 질서'를 강화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조하고 있었다. 특히 산불과 관련한 규제가 가장 많았는데, 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입산 행위를 규제하고 산불에 대한 감시, 통제, 순찰 강화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다.[4] 임산물 채취의 경우 해당기관의 허가와 승인 없이 나무를 마음대로 베어 쓰거나 기타 임산물을 불법

3) 북한 당국은 아카시아나무가 토지보호능력이 우수하여 산림조성에 좋을 뿐 아니라 도시원림용으로서도 적합하고, 땔감과 건설재료 · 가구재료 · 꿀벌치기(양봉) · 집짐승기르기(가축먹이) 등 이용가치가 높다는 것을 강조하며 아카시아나무의 조림을 선전하였다. 아카시아나무를 주제로 한 총 24개의 기사 중 23개의 기사가 1999, 2000, 2001년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4) "우선 사람들이 승인없이 무질서하게 산에 오르지 말아야 한다. …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입산증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며 입산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성냥과 불이 당길 수 있는 인화물질들을 가지고 산에 오르지 말아야 한다. 산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로동신문(2000.4.28, 산림보호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적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었다. 또한 나무를 베어 쓸 수 있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었다.[5] 영농행위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밭을 일구는 행위와 영농작업과 관련한 불놓이(화전) 행위를 규제하고 있었으며[6] 무승인 집짐승먹이 행위(가축 방목)를 규제하고 있었다.[7] 북한 당국은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 법적·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있었다.[8] 이러한 규제 사항은 실제로 1992년에 제정된 북한 산림법 제21조(입산, 불놓이허가), 제25조(산림구역에서 건설, 채벌, 채취작업), 제33조(나무베기허가사항준수), 제35조(나무, 잔디, 약초, 산열매의 채취), 제37조(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에 명시되어 있다.[9]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 사회에서 북한 산림법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보호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 산림관련 기사에 인용된 교시 및 지적의 주요 주제



5) 로동신문(1992.3.1, 산림조성과 보호관리 사업을 잘하자).

6) " … 영농작업과 관련한 불놓이를 규정의 요구대로 하도록 하고 있다." 로동신문(2006.3.14, 산림감독원들의 역할을 높여, 법동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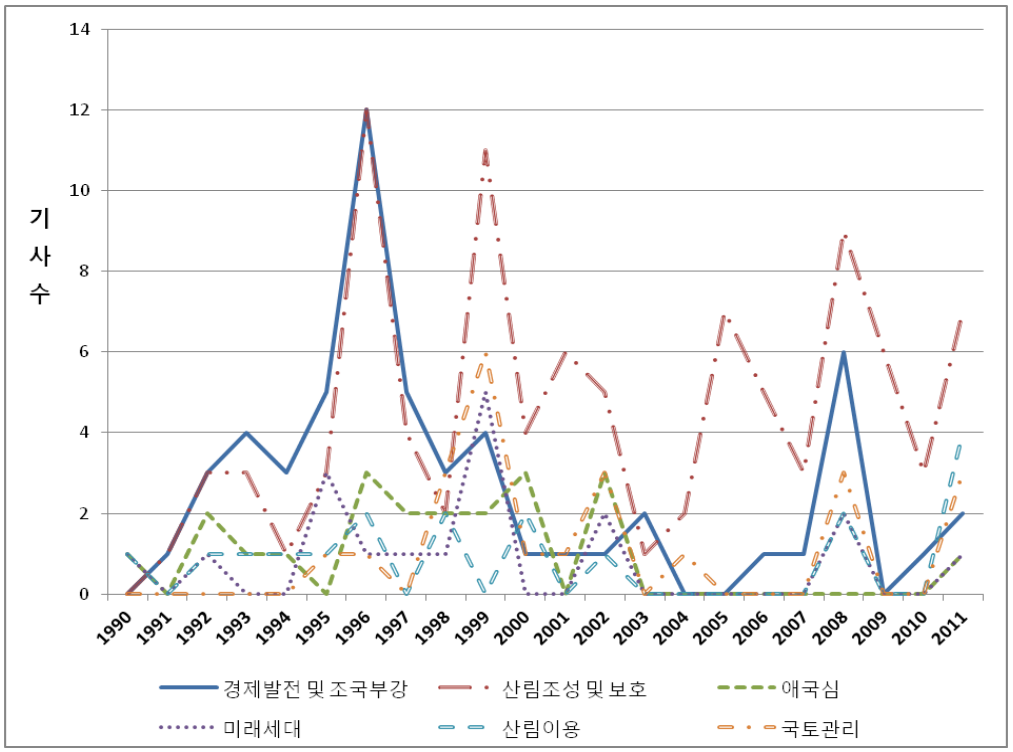
7) "이와 함께 모든 농장원들이 승인없이 아카시아나무림에 들어가 나무를 찍거나 집짐승먹이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로동신문(2001.9.19, 산촌의 새 풍치).

8) "감독통제기관 일군들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보호관리 사업에서 규정과 질서를 어기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제때에 문제를 세우고 해당한 법적, 행적적 제재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신문(1992.3.1, 산림조성과 보호관리 사업을 잘하자).

9) 로동신문(1992.12.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

산림조성과 보호 관련 주제 다음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한 경제발전 및 조국부강을 강조하는 내용의 교시 및 지적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부록 1, 교시 및 지적 번호 7[10]). <그림 4>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에 경제발전 및 조국부강에 관한 교시 및 지적과 산림조성 및 보호에 관한 교시 및 지적이 가장 높은 빈도로 인용되었다. 북한 당국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로동신문을 통해 산림조성과 경제발전 정책이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은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경제건설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박경석, 이성연, 박소영, 2009). 따라서 북한은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환경정책과 경제발전정책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환경정책통합(Briassoulis, 2005)을 도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 교시 및 지적의 연도별 분포



10) 로동신문(2000.10.21, 산림조성도 실리가 나게 해야 한다, 부강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교시 및 지적은 산림의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 기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필요한 통나무 생산을 임업의 기본 과업으로 명시하면서 목재 생산의 기능을 강조하였다(부록 1, 교시 및 지적 번호 15[11]). 산림의 다양한 생태적 기능 중 토지 보호 기능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부록 1, 교시 및 지적 번호 4[12]). 북한은 황폐화된 산림으로 인해 홍수 및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상황이므로 토지보호 기능이 더욱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교시 및 지적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를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활동'으로 간주하면서 산림의 사회적 기능도 강조하고 있었다(부록 1, 교시 및 지적 번호 31[13]). 이와 같은 결과는 부분적이기 하지만 북한 산림자원 및 경영 방식이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합의된 산림원칙(United Nations, 1992)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및 관리적 접근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교시와 지적은 산림을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 언급하면서, 산림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을 애국적인 행동으로 묘사하고 있다(부록 1, 교시 및 지적 번호 23[14]). 북한 산림법 제6조는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인민들이 산림보호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애국심을 강조하는 교시와 지적의 인용은 산림사업에 인민을 동원하려는 당의 정치적 의도가 드러난 결과로서 로동신문의 선전·선동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규제적 수단을 포함한 기사의 연도별 분포는 총 산림관련 기사의 연도별 분포와유사한 기울기와 폭을 갖는다(그림 5). 1990년부터 2009년까지 보도된 산림관련 총 기사의 약 80%가 규제적 수단인 교시 및 지적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1990~1994년: 83%, 1995~1999년: 78%, 2000~2004년: 78%, 2005~2009년: 80%). 이와 같은 결과는 최고지도자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의견이 산림정책의 타당성을 제공하는 북한 산림정책의 특성과 최고지도자의 명령이나 지시에 의존하여 기사가 작성되는 로동신문의 고유한 특성을 분명히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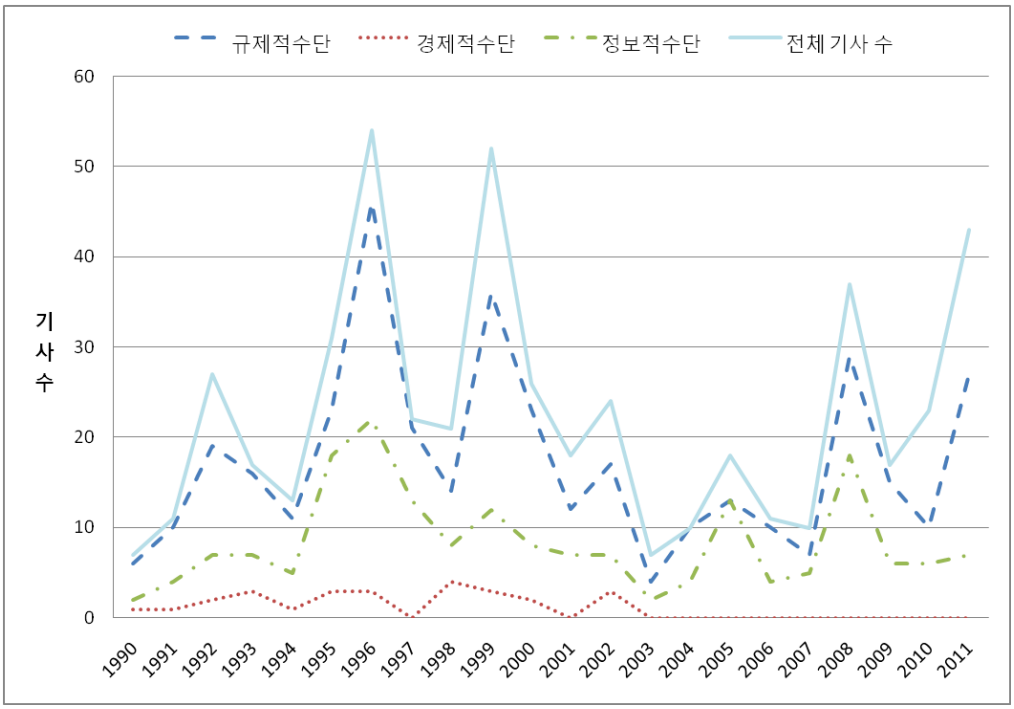
11) 로동신문(2008.1.14, 산판에 나래치는 혁신의 기상, 생장림사업소 상산작업소에서).

12) 로동신문(2000.3.12, 산과들에 경제림과 풍치림이 우거지게 하자, 울창한 산림과 토지보호).

13) 로동신문(1992.3.19, 산림조성과 보호관리를 잘한 보람).

14) 로동신문(2010.9.17, 산림자원을 늘이는 사람이 참된 애국자이다).

그림 5 정책수단을 포함한 산림관련 기사의 시계열추이



2) 경제적 수단

경제적 수단으로서 최고 지도자로부터의 포상 및 모범 업적에 대한 공로 평가에 관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북한 정부의 산림부문 예산 배정 및 투자에 관한 내용은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총 26개(전체의 5.2%)의 기사가 산림관련 업적 및 성과를 달성한 모범적인 개인을 소개하고 김일성·김정일로부터의 포상 수여 소식을 보도하고 있었다. 포상 및 공로 평가에 관한 보도는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로동신문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산림자원조성과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꾸리는 사업에서 그가 세운 공로를 평가하시여 여러 차례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니도록 해주시였다."[15]

15) 로동신문(1990.5.14, 보람찬 삶의 요람, 고원군산림경영소 소장 송학윤 동무의 체험에서).

"군산림경영소는 위대한 수령님의 표창장을 받는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았으며 모범경제림기업소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16]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근 20년간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 푸른 숲을 무성하게 가꾸어 조국의 재부로 만든 강동군산림경영소대리로동자구 산림보호원 리웅찬동무를 숨은 공로자로 내세워주시고 귀중한 선물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17]

본 연구결과를 통해 북한 사회가 상훈제도를 통해 산림관리 및 보호활동을 독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로 평가와 국가수훈 및 표창장 수여, 모범기업소 칭호 등은 근무의욕을 높이고 직무수행에 대한 긍지와 자기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최진욱, 2002). 실적은 북한 관료조직의 승진기준이므로 훈장, 메달, 상, 칭호와 같은 상훈제도는 우수한 실적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포상 및 공로 평가에 관한 기사는 모범사례에 선전, 선동, 교육, 동원에 필요한 요소들이 가미되어 보도되므로 북한 미디어의 정론적 속성(강현두, 1989)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산림부문의 공로 평가에 관한 기사가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그림 5). 이와 같은 현상은 식량 확보와 땔감 채취 등을 위한 산림 훼손이 심각해지면서 산림조성 및 보호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3)정보적 수단

전체 기사 중 37%에 해당하는 185개의 기사에 정보적 수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기사에는 북한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정보적 수단의 다양한 종류와 방법이 언급되어 있었다. 이는 북한정부가 산림조성 및 보호활동 참여에 대중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정보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사에 언급된 정보적 수단은 크게 일반 주민들에게 산림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의 기능과, 산림조성 및 산림보호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원의 기능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당정책 해설, 신년사 및 공동사설의 해설, 해설담화, 방식상학[18], '앞선 단위(상위 수준의 산림관련 기관 및 조직)'의 경험의 일반화, 기술자료, 기술도서, 기술지도, 과학기술전습, 기술강습제강, 보여주기 사업, 교양자료, 강연, 잡지, 도서, 과학기술서

16) 로동신문(1995.8.19, 푸른 숲과 함께 36년, 벽성군산림경영소 소장 홍원표동무).

17) 로동신문(1998.9.23, 조국의 숲은 영원히 푸르리, 강동군 산림경영소대리로동자구공훈산림공리웅찬동무).

18) 모범이 될 만한 본보기를 모든 단위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수업(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적, 과학영화보급사업, 과학기술보급사업 등을 포함한다. 또한 김일성과 김정일이 직접 지도하는 교시, 현지교시, 현지지도, 서한, 로작[19] 등도 포함되는데, 이는 지도자를 시작으로 하여 '위로부터의 가르침'을 통해 산림조성과 보호를 올바르게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선전·선동의 기능을 갖는 정보적 수단으로 국토관리사업총화·궐기대회·식수대회·산림과학기술토론회 등 국가적 차원의 산림분야 관련행사, 해설선전, 선동연설, 소개선전, 직관물들과 방송차, 예술선동공연, 예술영화, 영화실효모임, 녹화물, 선전화, 구호, 표어, 걸그림, 선동과 노래, 재담 등 다양한 방법과 도구들이 동원되고 있었다. 대중을 선동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선동원, 선전원, 선전대, 기동예술선동대 등의 활동을 통하여 산림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선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산림정책 주제별 정책수단

로동신문에 보도된 산림정책 주제별 산림정책수단의 보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산림정책 주제별 총 기사수와 주제별 기사 중 정책수단에 관한 보도를 포함한 기사 수는 비례하였다(표 4). 이와 같은 결과는 산림정책 주제에 상관없이 산림정책에 관한 보도가 산림정책수단에 관한 내용을 수반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표 4>에 따르면 모든 주제의 산림기사에서 규제적 수단이 가장 빈번히 보도되었고, 경제적 수단은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산림조성, 산림경영, 국토관리, 산림보호라는 각각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로 규제적 수단과 정보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책 주제에 비해 국토관리에 관한 기사에서 규제적 수단을 보도하는 기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4). 연도별 기사 분포를 살펴보면 국토관리에 관한 총 기사와 국토관리에 관한 기사 중 규제적 수단을 보도한 기사의 분포가 거의 동일하다(그림 6). 국토관리 관련 기사가 총 37개인데, 국토관리 관련 교시 및 지적 총 23개가 기사에 인용되었기 때문이다(그림 3). 1998년 국토환경보호성이 설립된 후 1999년에 특히 교시를 통해 토지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산림이 강조되었다(부록 1, 교시 및 지적 4번 참조). 다른 정책 주제에 비해 산림보호에 관한 기사 중 정보적 수단을 포함하는 기사의 비율이 높았다. 2005년 이후부터 산림보호에 관한 교육 및 선동활동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하였다(그림 7). 산림보호정책이 강화되면서 산림보호활

19) '노작'의 북한어. 노동 계급의 혁명 이론 발전에 의의를 가지는 고전적 저서를 이르는 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동에 인민을 동원하기 위한 다양한 선전, 선동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표 4 로동신문에 드러난 산림정책 주제별 산림정책수단의 보도

국가 산림정책 주제 (기사 수)	정책수단	기사 수 (백분율)
산림조성 (162)	규제적 수단	117 (72.2)
	경제적 수단	2 (1.2)
	정보적 수단	61 (37.7)
산림경영 (70)	규제적 수단	54 (77.1)
	경제적 수단	2 (2.9)
	정보적 수단	21 (30.0)
국토관리 (37)	규제적 수단	32 (86.5)
	경제적 수단	1 (2.7)
	정보적 수단	14 (37.8)
산림보호 (29)	규제적 수단	21 (72.4)
	경제적 수단	0 (0.0)
	정보적 수단	14 (48.3)

그림 6 국토관리와 산림에 관한 기사 중 정책수단을 보도한 기사의 연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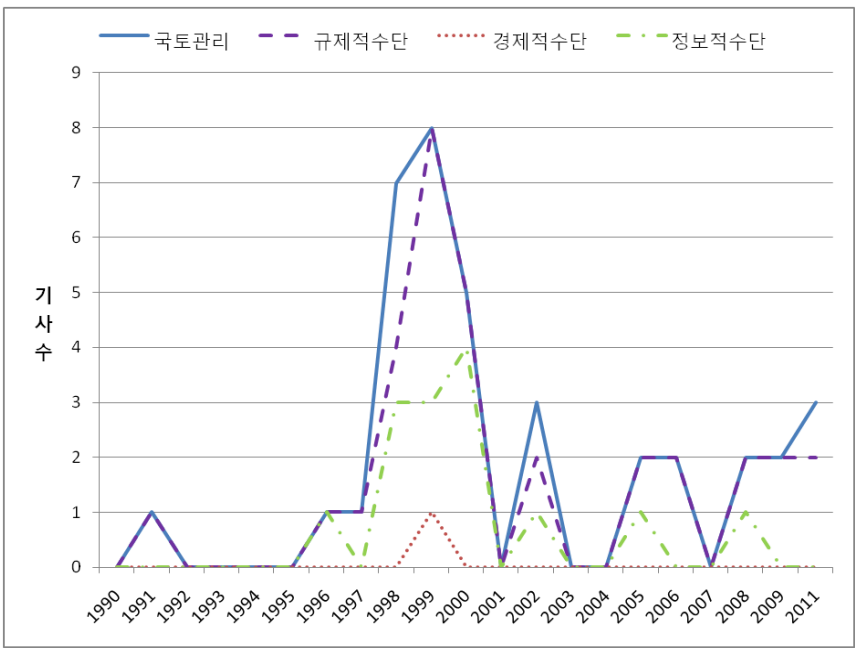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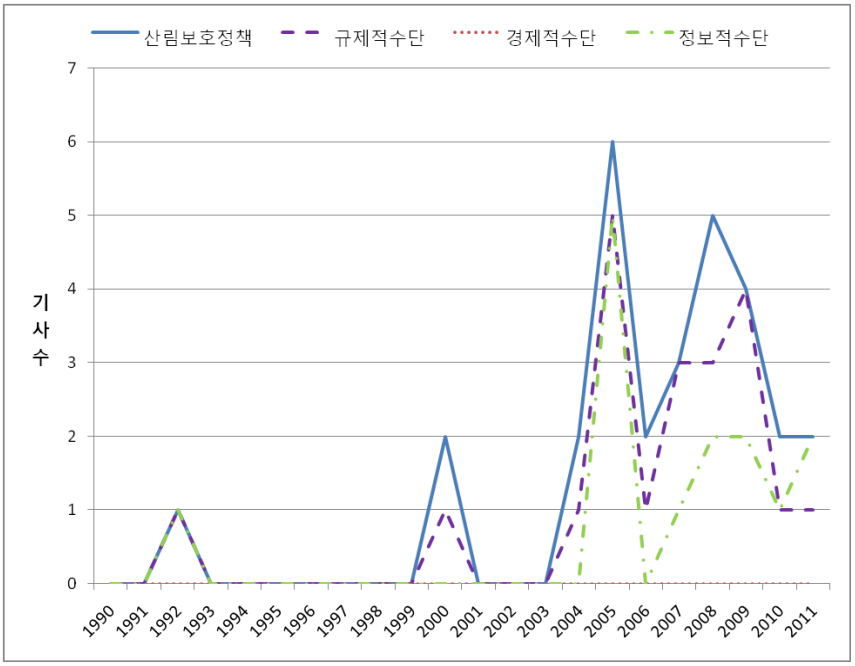


그림 7 산림보호에 관한 기사 중 정책수단을 보도한 기사의 연도별 분포



Ⅴ. 결론 및 고찰

로동신문은 북한의 당 기관지로서 북한 당국이 강조하는 정책을 담고 있다. 또한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 제약 및 불확실성의 한계를 지니는 북한연구에 있어서, 로동신문은 국내에서 접근이 가능한 공식적인 문서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정부가 지난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해온 산림정책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한 정책수단이 로동신문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산림 기사에 언급된 국가산림계획 및 정책을 귀납적 방법을 통하여 범주화하고 그 시계열 추이를 분석한 결과, 1990년대에 비하여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산림자원의 이용과 임목생산 계획 및 정책에 대한 보도 횟수가 감소하였고,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수림화·원림화 정책의 강조와 함께 산림의 보호 및 관리 정책에 대한 보도 횟수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 정부의 산림정책 변화가 로동신문에 반영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북한 당국이 과거에는 산림자원의 이용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산림보호와 관리에 관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책수단이론에 기반하여 북한정부가 산림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한 정책수단을 분석한 결과, 규제적 수단에 대한 보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산림관련 총 기사의 96%가 김일성 혹은 김정일의 교시 및 지적을 인용함으로써 산림정책의 정당성 및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국가 지도자의 교시에 기반하여 정책이 결정되고 추진되는 북한 사회의 특성이 산림분야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복적으로 인용된 교시 및 지적의 주요 내용은 산림의 경제적 기능을 이용한 경제발전 및 조국부강, 산림의 조성 및 보호, 산림의 목재 생산기능, 국토관리의 일환으로서의 산림보호, 애국심에 호소한 산림조성 및 관리,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한 활동으로서의 산림관리에 대한 강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정보적 수단이 산림관련 기사에 보도되었다. 산림정책 및 산림관련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교육하기 위한 활동과 산림계획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중을 선동하는 활동들이 추진되고 있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 산림보호에 관한 선전, 선동활동의 보도가 증가하였다. 한편 경제적·사회적 유인수단의 경우, 산림활동에 대한 표창 사례가 일부 보도되었다. 북한 당국은 드물지만 상훈제도를 통하여 산림사업에 모범적으로 동참할 것을 독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림활동에 대한 국가 예산 배정이나 투자에 관한 내용은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북한의 산림정책 실행과정에서 다른 정책수단에 비하여 경제적 수단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 당국이 산림정책을 알리고 산림사업에 인민을 동원하기 위하여 국가의 공식적 대표 미디어인 로동신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북한산림정책관련 사건이나 활동들이 로동신문에 잘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표제에 '산림' 혹은 '림산'을 포함한 기사만을 표본으로 하고, 산림정책의 내용과 산림정책수단에 집중하여 산림정책을 분석하면서 연구대상과 범위가 협소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산림관련 보도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북한의 산림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북한산림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남북산림교류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현두. 1989. “북한 방송”. 「북한의 언론」, pp.141-182. 유재천 편. 을유문화사.

_____. 1997. 「북한 매스미디어론」. 나남출판, p.2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_____.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김경모. 2005. “북한신문의 국제뉴스 내용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31): 9-49.

김병섭. 2008. 「편견과 오류 줄이기: 조사연구의 논리와 기법」. 법문사, pp.582-585.

김성욱. 2010. “북한지역 산림법제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26(2): 173-199.

김영주, 박춘서. 2001.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본 북한언론이론의 변화".「동북아연구」 6(-): 5-47.

김태근. 2003. 「LULUCF 프로젝트를 통한 탄소저감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1-52.

박경석, 박소영. 2009. “북한의 산림관리”. 「숲과 문화」. 18(1): 13-18.

박경석, 송영근, 배재수, 박상비, 김세빈, 곽경호. 2007.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임업보조금체계 개편방안」. 국립산림과학원.

박경석, 이성연, 박소영. 2009.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북한 산림관리 변화 연구”. 「통일문제연구」 21(1): 459-492.

_____. 2011. “북한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황폐산림복구 기본방향”. 「한국임학회지」. 100(3): 423-431.

박경석, 이성연, 차준희. 2003. 「북한 산림·임업 동향」. 임업연구원 연구자료 2003-210, pp.46-51.

박동균. 2000. “북한 산림 현황 및 황폐 산림 복구방안”. 「숲과 문화」. 9(4): 26-31.

박상익. 2008. "북한 관료문화의 특성 ‘주체 관료문화’". 「북한학 연구」 4(1): 57-95.

변홍상. 1992. "북한의 산업4: 북한의 임업 실태".「북한」(241): 162-169.

산림청. 2009. 「기후변화와 산림」.

_____. 2008. 「녹화성공국에서 지속가능한 산림 선진국가로 도약」. http://www.forest.go.kr/new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1036&mn=KFS_09_02&nttId=403330

염종민, 한경수, 이창석, 박윤영, 김영섭. 2008. "SPOT/VEGETATION NDVI 자료를 이용한 북한지역 식생 변화 탐지".「한국지리정보학회지」 11(2): 28-37.

염홍철. 1987. "최근 10년간('76.7—'86.6)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21(2): 291-312.

오영출. 2007.「북한지역 산림황폐지 복구를 위한 A/R CDM 활용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79.

유병일. 1992. "심층분석: 새땅찾기로 훼손된 북한의 산림실태".「북한」(245): 68-81.

_____. 1995. "동북아시아 5개국(한국, 북한, 일본, 중국, 대만)의 산림법과 산림자원". 「한국임학회지」 84(1): 10-21.

윤여창, 박동균. 2008. "남북한 산림정책 비교".「남북한 환경정책 비교연구」, pp.5-110. 윤여창, 박동균, 박종화, 전효택, 최종근, 허은녕, 윤순진. 서울대학교출판부.

윤여창, 박동균, 홍성각. 1999. "산림부문 남북한 협력 과제 및 추진 전략".「북한연구학회보」 3(2): 53-82.

이경식. 2009. "북한 통치구조의 변화 연구". 「윤리교육연구」(20): 207-235.

이규성, 윤정숙, 정미령. 1999. "북한 지역 산림면적 변화의 규모와 특성."「한국임학회지」 88(3): 352-363.

이동근, 오영출, 김재욱. 2007. "A/R CDM을 위한 북한지역의 산림변화 연구".「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지」 10(2): 97-104.

이미경. 2002.「북한의 정치적 지향점의 변화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4.

이민부, 김남신, 최한성, 신근하, 강철성, 한욱. 2003. "위성영상 분석에 의한 만포-강계 지역 경지확대에 따른 산림경관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4): 481-492.

이민부, 한욱, 김남신, 한주연, 신근하, 강철성. 2003. "多時期 위성영상을 이용한 두만강 하류지역의 농경지 개간의 공간적 특성분석". 「대한지리학회지」 38(4): 630-639.

이원섭. 2007. "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 조선, 중앙, 동아일보와 한겨레, 경향, 서울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52: 325-366.

이재일. 1993.「남북한 언론의 남북고위급회담 보도태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4.

이항구. 1980. "북한의 내막: 북한의 임업현황".「북한」(108): 240-247.

이항동. 1997. "로동신문 사설분석에 의한 북한정책의 변화: 1987-1996".「한국정치학회보」 31(4): 131-160.

장하용, 박경우. 2005.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의 여성". 「언론과학연구」 5(2): 383-416.

전현준. 2001.「김정일 정권의 분야별 정책변화 추이 분석」.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001, pp.1-182.

정승규, 박종화, 김상욱. 2006. "MODIS 다중시기 영상의 선형분광혼합화소분석을 이용한 한반도 토지피복 분류도 구축". 「대한원격탐사학회지」 22(6): 553-563.

진희관. 2004. "로동신문에 나타난 경제 관련 기사 추이 분석".「통일문제연구」16(1): 201-231.

조장환, 구자춘, 윤여창. 2011.“북한 산림전용 방지수단으로서의 REDD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한국임학회지」100(4): 630-638.

차수영, 서동조, 박종화. 2009a. "시계열 MODIS 자료의 식생지수를 이용한 북한 개마고원 지역의 생물계절 특성 연구".「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7(1): 477-480.

차수영, 서동조, 박종화. 2009b. "MODIS자료를 이용한 북한 개마고원 및 백무고원 식생의 생물계절 모니터링".「대한원격탐사학회지」25(5): 399-409.

최진욱. 2002.「현대북한행정론」. 인간사랑, p.436.

편완식. 2001.「남북정상회담 이후 로동신문 보도성향의 변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9-32.

한기주. 2005.「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산림 흡수원 CDM 사업의 경제성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1-95.

한기주, 윤여창. 2007.“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림 CDM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한국임학회지」96(3): 235-244.

한동섭, 유승현. 2008.“언론보도에서 나타난 익명정보원에 관한 연구: "미국산 쇠고기수입논란"을 중심으로”.「언론과학연구」8(4): 702-739.

홍은경. 2003. *Feasibility study on reforestation project in North Korea as a LULUCF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activity*.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63.

Riffe, D., S. Lacy, and F. G. Fico. 2001.「미디어 내용분석 방법론」. 커뮤니케이션북스, pp.13-63.

Mueller, F. B. 1993. "북한의 임업".「숲과 문화」2(1): 42-49.

Bemelmans-Vedec, M.-L., R. C. Rist, and E. Vedung. 1998. *Carrots, sticks and sermons: policy instruments and their evaluation*. 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p.280.

Bernard, B. 1952. *Content analysis in communication research.* Free Press.

Briassoulis, H. 2005. *Policy integration for complex environmental problems: the example of meditarranean desertification.* Athenaeum Press, pp.1-49.

Cubbage, F., P. Harou, and E. Sills. 2007. “Policy instruments to enhance multi-fuctional forest management”. *Forest Policy and Economics,* 9(7): 833-851.

Galtung, J. and M. H. Ruge. 1965. “The structure of foreign news”. *Journal of Peace Research,* 2(1): 64-91.

Lazdinis, M., A. Carver, K. Tonisson, and I. Silamikele. 2005. “Innovative use of forest policy instruments in 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experience of the Baltic states”. *Forest Policy and Economics,* 7(4): 527-537.

Maplecroft. 2011. Deforestation Index 2012. http://maplecroft.com/about/news/deforestation.html [2011, Nov. 24].

Max, K. 2005. *Forest Policy Analysis.* Springer, pp.151-246.

McQuail, D. 1994. *Mass communication theory: An introduction*. London/Thousand Oaks/ New Delhi: SAGE.

Park, M. S. 2009. *Media Discourse in Forest Communication: The Issue of Forest Conservation in the Korean and Global Media*. Goettingen: Cuvillier, pp.27-33.

Park, M. S. and Y. C. Youn. 2010."Korean forest governance: an inter-Korean forestry cooperation approach". *The International Forestry Review,* 12(5): 214.

Robinson, M. J. 1981. "The media in 1980: Was the message the message?" *The American Elections of 1980*, pp.171-211. Ranney, Austin ed.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Serbruyns, I. and S. Luyssaert. 2006. "Acceptance of sticks, carrots and sermons as policy instruments for directing private forest management". *Forest Policy and Economics,* 9(3): 285-296.

United Nations. 1992. *Non legally binding authoritative statement of principles for a global consensus on the management,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all types of forests.* http://www.un.org/documents/ga/conf151/aconf15126-3annex3.htm

〈부록 1〉 1990~2011년 로동신문에 실린 산림관련 기사에 인용된 김일성 및 김정일의 교시 및 지적[20)]

	교시 및 지적	인용 빈도
1	산림을 잘 조성하고 보호관리하여야 산림자원을 끊임없이 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일수 있으며 토지를 보호하고 국토를 아름답게 할수 있습니다.	27
2	산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 산림조성과 보호관리 사업을 잘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13
3	나무모생산을 앞세우는것은 산림을 전망성있게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11
4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토지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11
5	산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 산림을 잘 조성하고 보호하는것은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이고 국토를 아름답게 할뿐아니라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10
6	산에 경제적으로 쓸모있는 나무들을 많이 심어야 합니다.	9
7	산림자원을 끊임없이 늘여나가야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일수 있으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8
8	산림을 보호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산불을 철저히 막는것입니다.	7
9	산림을 잘 보호하는 것은 산림조성사업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7
10	나무심기를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는것은 산림조성 사업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 있는 일관한 방침입니다	7
11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사업입니다.	6
12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같이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입니다. 산림자원을 끊임없이 늘여나가야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일수있으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6
13	무엇보다도 산림조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용재림, 경제림, 보호림, 풍치림을 비롯한 모든 산림을 전망성있게 잘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6
14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 울창한 산림을 조성하여야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이고 국토의 면모를 일신할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줄수 있습니다.	6
15	통나무생산을 끊임없이 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 필요한 목재를 원만히 보장하는 것은 림업부문앞에 나서고있는 기본과업입니다	5
16	산림을 잘 조성하자면 산림조성계획을 세우고 산림조성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5
17	나무를 많이 심는것과 함께 심은 나무에 대한 관리사업을 잘 하여야 합니다.	5
18	산림을 잘 보호하자면 산불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5
19	아카시아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5
20	산림자원은 나라의 만년대계의 귀중한 재부이며 오늘 목재생산을 높이는것은 인민경제발전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4

20) 부록에서 정리한 교시 및 지적은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교시 및 지적 문장을 제외한 195개임

	교시 및 지적	인용 빈도
21	산을 종합적으로 리용하자면 산을 아끼고 사랑하여야 하며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심고 잘 가꾸어야 합니다.	4
22	모든 시, 군들에 묘목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널리 퍼치게하여야 합니다	3
23	나라의 산림자원을 늘이고 온 나라를 숲이 우거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기 위하여 한대의 나무라도 더 심고 아끼고 가꾸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3
24	우리에게는 말로 하는 애국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애국이 필요합니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 앞에서는 말로 대답할것이 아니라 몸을 내대야 합니다.	3
25	진정으로 애국을 하려면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애국적인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3
26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애국심은 주체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이며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인 사회주의 내 조국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빛내이려는 불타는 마음입니다.	2
27	나는 공장과 건설장에서 일하는 로동자들과 조국의 외진 초소를 지켜선 군인들을 찾아가는 길에서 밀림속을 지나거나 무성한 숲을 볼 때면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마음이 더없이 즐거워지며 자연히 숲을 가꾸어온 사람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숨은 노력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2
28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를 사랑하는데로부터 시작하여 조국의 산과 강, 도시와 마을을 사랑하며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귀중히 여기는데서 표현되여야 합니다	2
29	숨은 공로자들은 직위와 명예를 바라지 않고 당과 수령의 원대한 구상을 조국땅우에 꽃피우기 위하여 한생을 묵묵히 바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애국자들입니다.	2
30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경제적으로 유익한 나무들을 많이 심어야 하겠습니다	2
31	우리는 조국의 앞날과 후손들의 행복을 생각하고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많이 심어야 하며 온 나라의 산들을 수림이 무성하게 만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2
32	향토를 잘 꾸리는것은 나라의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2
33	국토관리사업은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사업이며 국토관리사업을 잘하여 삼천리금수강산을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려는것이 당의 의도이고 결심입니다.	1
34	나라의 산림자원은 우리 인민자신의 재부이며 산림자원을 늘이는 사업은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사업입니다.	1
총합		195